

## 국소 사구체 경화증 환자에서 복시와 두통으로 발견된 위시상정맥동혈전 (Sagittal Venous Sinus Thrombosis)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내과, 신경과\*

김태희 · 권순억\* · 석현정 · 박수길 · 양원석

**서 론** : 혈전색전증은 신증후군의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로 보고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35%에서 신정맥혈전증,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과 뇌정맥혈전증 등이 발생한다. 그 중 뇌정맥혈전증은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신증후군 환자에서 뇌정맥혈전증이 합병된 보고에서 두통, 구토, 발작이 주된 첫 증상이었으며 비특이적인 시력 저하도 가끔 보고되었다. 저자들은 국소 사구체경화증 환자에서 복시와 시야 흐림을 주소로 진단된 뇌정맥혈전증을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 18세 때 국소 사구체경화증 (FSGS)으로 인한 신증후군으로 진단받고 cyclophosphamide과 prednisolone을 복용 중이던 20세 남자 환자로 내원 2개월 전부터 시작된 두통과 2개월간 30 kg의 체중 증가로 인한 심한 전신 부종으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내원 직후 복시와 흐린 시야를 호소하여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에서 위시상정맥동혈전증 (sagittal venous sinus thrombosis)을 발견하였다. 즉시 헤파린과 와파린 치료를 시작하였고 전신 부종과 호흡곤란이 심해지면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면서 혈액투석을 병행하였다. 4차례의 혈액투석 후 부종이 호전되면서 소변량도 급격히 증가되어 투석은 중단하였으며 이후 점차 복시와 시야 흐림이 호전되어 내원 48일째 퇴원하였다.

**결 론** : 신증후군에서 응고 항진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나 응고 인자의 변화, 섬유소 용해의 장애, 혈소판의 과응집상태가 스테로이드나 이뇨제의 복용들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증상이 있는 혈전증은 헤파린으로 항응고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와파린을 사용하여 INR 2-4를 유지하도록 한다. 현재까지 와파린의 사용 기간이나 신증후군에서 예방적으로 항응고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